

## 111 학년도 1 학기 유라시아재단 국제강좌

### “아시아 공동체: 동아시아학의 구축과 변용” 시리즈 (3)

#### 주제: 삶의 본질에 충실하다-안톤 체호프의 희극(戲劇) 인생

중국문화대학교 111 학년도 Eurasia 재단 국제 특강 제 3 회는, 중국문화대학교 러시아학과 학과장인 진조인(陳兆麟) 교수를 초청하여 「삶의 본질에 충실하다-안톤 체호프의 희극(戲劇) 인생」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하였다. 안톤 체호프(Anton Chekhov, Anton Pavlovich Chekhov)를 소개하기에 앞서, 진 교수는 러시아 근대 문학의 유명한 작가와 작품을 소개하였고, 다음으로 안톤 체호프의 생애와 대표작을 단계별로 소개하였으며, 그의 대표 작품인 4 대 희곡의 내용과 영향에 대해서도 소개하였다.

#### 러시아 문학 소개

러시아 근대 문학은 알렉산드르 푸시킨(Aleksandr Pushkin)의 서정시에서 기초를 다졌으며, 19 세기 러시아 문학은 소설이 주를 이루었다. 이반 트루게네프(Ivan Turgenev)의 『사냥꾼의 수기』, 『아버지와 자식』, 표도르 도스토옌스키(Fyodor Dostoyevsky)의 『죄와 벌』,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 그리고 레오 톨스토이(Leo Tolstoy)의 『전쟁과 평화』, 『안나 카레니나』 등 사실주의 문학 작품을 쓴 세계적인 소설가들을 배출하였다. 즉 19 세기는 러시아 문학의 황금기라 할 수 있다.

20 세기는 소련 정부에 의해 문학 창작에 제한이 많았으나, 여전히 상당수의 우수한 작품들이 등장하였다.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러시아 작가들은 이반 부닌(Ivan Bunin), 요세프 브로드스키(Joseph Brodsky), 보리스 파스테르나크(Boris Pasternak, 『닥터 지바고』), 솔로호프(Mikhail Sholokhov, 『고요한 둔강』), 솔제니친(Alexander Solzhenitsyn, 『수용소군도』)이 있다.

진 교수는 이러한 유명 작품을 통해 러시아의 풍토와 민정, 러시아인들의 생각을 이해할 수 있다고 하였다.

#### 안톤 체호프의 생애와 창작

안톤 체호프(1860-1904)는 19 세기 말 현실주의를 비판한 작가였으며, 유머와 풍자의 대가로, 그의 작품으로 중단편소설과 희곡 창작이 있다. 안톤 체호프의 가족은 원래 농노였는데, 할아버지 대에 자수성가하여 자유의 몸이 되었다. 안톤 체호프의 부모님은 타간로크(Таганрог)에서 잡화점을 운영하여 생계를 유지하였으나, 경제적 어려움이 많아 안톤 체호프는 어려서부터 힘든 시절을 겪었다. 이후 아버지의 가게가 파산하였고, 빚을 피해 모스크바로 이주하였다. 안톤 체호프는 학업과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단편소설을 투고하기 시작해 1880 년 처음 작품을 발표하였다.

안톤 체호프의 창작은 세 가지의 단계로 나눌 수 있다. 초기(1879-1886)에는 단편소설(『관리의 죽음』, 『방카』)을 중심으로 유머러스하고 풍자적인 글로 주목받기 시작하였다. 주로 구사회의 추악함과 위선을 글로 표현하였다. 중기(1886-1892)에는 중단편소설(『초원』, 『6 호실』)에 더 이상 유머러스한 이야기를 쓰지 않고, 소박한 글과 진지한 감정을 현실 생활에 묘사하여, 구사회와 죄악에 대한 원망을 표현하였다, 동시에 그는 희곡을 창작하여 당시에 평범하고 회색적이며, 교화적 인심(人心)이 전혀 없었던 연극을 개선하려 하였다. 안톤 체호프는 본연의 모습을 따라 삶을 묘사해야 한다고 주장하여, 그의 소설과 시나리오에서는 절정이 일어나거나 굴곡이 심한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말기(1892-1904)에는 삶의 본질에 충실한 창작을 지속적으로 종사하였으며, 중단편소설(『농부들』, 『골짜기에서』) 외에 희곡(『갈매기』, 『바냐 아저씨』, 『세 자매』, 『벚꽃 동산』)은 그의 창작의 중심이었으며 장래의 아름다운 사회에 대한 전망, 사람들의 희망적인 삶에 대한 내용을 묘사하였다.

## 안톤 체호프의 4 대 희곡

안톤 체호프의 희곡 『갈매기』, 『바냐 아저씨』, 『세 자매』, 『벚꽃 동산』은 근대 러시아의 무대를 지배했을 뿐 아니라 전 세계 연극 발전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을 글로 썼지만, 일상 생활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인생의 중요한 내용을, 삶의 본질을 나타내는 소박하지만 상징적인 의미를 드러냈다.

『갈매기』는 극 중 여자 주인공인 니나 미하일로브나 자레치나야(Нина Михайловна Заречная)는 삶의 시련을 겪은 후 예술가로서의 사명을 깨닫고 도전하는 젊은 여배우이다. 『바냐 아저씨』는 숭고한 이상과 목표가 없는 지식인의 비극적 운명을 서술하고, 주인공이 정신적 위기를 겪으면서 자신의 삶의 길을 다시 생각하게 되는 드라마틱한 심리 내용과 인생 철학을 담은 내용이다. 『세 자매』는 한 상류층 가족이 쇠락하는 구시대적인 러시아 생활을 묘사하였다.

극 중 주인공은 미래에 대한 많은 아름다운 동경을 가지고 있지만 갖가지 힘든 시련을 겪은 후에야 비로소 삶의 현실을 깨닫게 된다. 『벚꽃 동산』은 벚나무 동산을 처리하는 과정을 통해 지주(地主)들의 몰락과 자산 계급의 부흥의 사실을 반영하고 있다.

안톤 체호프의 문학 창작은 일생활에 입각하여 문학은 [삶의 본래 모습]을 묘사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소박하고 담백하며, 절정이나 곡절이 담긴 글은 극히 드문 편이다. 안톤 체호프는 삶이 곧 예술의 원천이라 생각한다. 비록 현실이 때때로 지루하고 어둡지만, 그의 작품에서 극작가의 밝은 미래에 대한 동경을 읽을 수 있다.

번역: 이세희(李世曦) 한국어문학과 석사

감수: 김선효(金善孝) 한국어문학과 교수